

올 한 해 빛낸 광양 뉴스, '정부합동평가 종합 1위' 최다 득표

주요 우수 성과 '10대 뉴스' 선정...2위에 인구 증가 성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일자리 창출·매화축제 유료화 등 주목

광양시가 올해 시민들로부터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광양시 10대 뉴스'를 발표한 가운데 '정부합동평가 종합 1위 달성'이 1위를 차지했다. 23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10대 뉴스는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시민과 공직자 1천383명을 대상으로 네이버 폼과 새

올 행정시스템을 통해 선정됐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뉴스는 '정부합동평가 종합 1위 달성'이다. 광양시는 전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모두 1위를 석권하며 도내 최초로 종합 1위를 기록했다.

정량평가는 76개 지표 중 74개 지표를 달성해 달성률 97.3%를 기록했으며, 정성평가에서도 역대 최다인 17개 지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위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이뤄낸 '최근 3년 연속 인구 증가' 성과다. 광양시는 일자리 창출, 신규 공공주택 공급,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등의 복합적 결과로 인구가 2021년 15만31명에서 올해 11월 기준 15만4천52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27~34세 취업적령기 청년 인구

가 꾸준히 증가하며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자리 잡았다. 3위는 '365일 연중무휴 달빛어린이병원 본격 운영'이 차지했다. 중마동 다나소아과의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며,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소아 응급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경쟁력 호남 1위, 전국 22위'는 4위에 올랐다. 광양시는 한국지방자

치경쟁력지수(KLCI) 평가에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607.3점을 기록하며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상위 10%에 진입했다. 5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전국 최초 10년 연속 수상'이 선정됐다. 광양시는 올해 일자리5천23개를 창출하며 고용률 71.7%, 청년고용률 42.8%를 기록했다. 특히 이차전지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서 대기업 취업 성과를 이뤘며 주목받았다. 이 밖에도 ▲'광양매화축제 첫 유료

화 성공' ▲'SNS 2개 부문 최우수상 8년 연속 수상' ▲'공공산후조리원 착공'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생애복지플랫폼 10 완성' 등이 10대 뉴스로 선정됐다. 김재신 홍보소통실장은 "한 해를 되돌아보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향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광양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며 "주요 사업과 역점시책에 관심을 가지고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장성군, '탄핵 정국' 민생안정대책 추진 박차

지역화폐 구매해도 상향·농가 경영지원비 신속 지급

장성군이 탄핵정국으로 위축된 시민 경제 부양을 위해 소매를 견뎌왔다. 23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확대간부 회의에서 김한중 장성군수가 군민 일상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지시한 이후, 적극 행정에 나서고 있다. 장성군은 내년 1월 한 달간 지역화폐 구매 장려를 위한 카드형 상품권 할인율을 15%로 높이고, 개인 구매한도도 카드 종이형 합산 100만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카드형 상품권은 휴대전화 앱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을 설치한 후 카드를 발급·충전해 사용한다. 종이형 상품권은 농협, 광주은행, 신한 등 지역 내 23개 판매대행점에서 구입 가능하다. 종이형 상품권의 경우 종전과 동일한 10% 할인율이 적용된다. 쌀값 하락으로 어려운 농업인 지원

도 펼친다. 군은 지난 18일 지역 내 5천9농가에 20억7천700만원 규모 비영안정대책비를 신속 지급했다. 20일에는 전라작물직불금 1천430농가 14억5천100만원, 23일 친환경직불금 446농가 1억8천400만원을 차례대로 지원할 계획이다. /장성=김문태 기자

김한중 군수는 "관광수요 감소, 골목상권 침체 등 예측 가능한 다양한 리스크를 분석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민생 어려움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성군은 김한중 군수 지시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긴급 지역맞춤형 민생안정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장성=김문태 기자



김한중 장성군수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군민 일상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이병노 담양군수, MZ세대 공직자 소통 행보

담양혁신주니어보드팀 간담회...연구과제 보고·자유 의견 교환

담양군은 "최근 담양혁신주니어보드팀이 이병노 군수와 소통·공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지난 8월 출범한 담양혁신주니어보드는 7급 이하 20~30대 젊은 공직자들로 구성된 회의기구로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팀별 사례조사와 연구 활동을 추진해 왔다. 간담회는 혁신주니어보드팀 연구과제에 대해 보고하고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질의 토론회하며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유튜브 기반의 부서별 소통 공간 마련 ▲의견 의견제시 게시판 도입 ▲후배가 선배에게 의견을 제안하는 리버스멘토링 ▲실무 문서작성 단축키 사용법 배부 ▲인수인계 활성화 방안과 부서별 안내서 제작 ▲주간업

무보고 체계와 당직 근무 시스템 개편 ▲온라인 서면심의 진행 방법 등 참신한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담양군은 연구과제 심사와 더불어 직원들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1팀을 선정했다. /담양=정승훈 기자



이병노 담양군수가 담양혁신주니어보드팀 연구과제에 대해 보고하고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질의 토론회하며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담양군 제공)

순천사랑상품권 15% 할인판매

내년 1월 한 달간... "새해·설 명절 경제 활성화"

순천시는 23일 "다가오는 새해와 설 명절을 맞아 2025년 1월1일부터 31일까지 순천사랑상품권을 1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판매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소비를 촉진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행된다. 할인을 15%는 지류(종이)형과 모바일형 모두에 적용되며, 1월 한 달간 약 480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발행될 예정이다. 한 사람이 지류와 모바일을 합쳐 최대 50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단 지류형은 3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지류형 순천사랑상품권은 순천시 관내 농협은행·순천농협·순천광양축협·순천원예농협·전남낙농농협 지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형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착)' 앱을 통해 충전이 가능하다. 카드 발급은 순천시 관내 모든 농협, 신한, 우체국, 새마을금고, 광주은행에서 가능하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특별할인 판매가 어려운 시기에 새해와 설 명절을 맞이하는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의 경제활동에 적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상품권 할인판매를 시행해 왔으며, 올해 한 해 동안 1천389억원의 판매했다. /순천=정기 기자



구례군이 최근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흙을 살리는 첫걸음, 철쭉 재배 근절'을 주제로 특별 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철쭉 재배 근절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흙 살리기' 구례군, 철쭉재배 근절 교육 돌입

농약 비산·양질 토양 반출·오염 등 문제점 안내

구례군이 철쭉 재배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23일 구례군에 따르면 최근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흙을 살리는 첫걸음, 철쭉 재배 근절'을 주제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구례군은 철쭉 재배로 인한 농약 비산, 양질의 토양 반출, 토양 오염 등 여러 문제점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철쭉 재배로 인한 토양 오염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구례군은 보조 사업 대상에서 철쭉 재배지를 제외하고, 철쭉 재배를 위한 농지 불법 임대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철쭉재배 근절 대책 시행 지침'을 수립했다. 이 지침을 통해 철쭉 재배 근절을 적극 추진하며, 지역 내 토양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농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토양 생태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구례군은 보조 사업 대상에서 철쭉 재배지를 제외하고, 철쭉 재배를 위한 농지 불법 임대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철쭉재배 근절 대책 시행 지침'을 수립했다. 이 지침을 통해 철쭉 재배 근절을 적극 추진하며, 지역 내 토양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농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토양 생태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여수해수청, '느림보 우체통' 사연모음집 발간

200여점 선별 책자로 엮어...여객선 터미널 등 비치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23일 "지난 20일 2024년 한 해 동안 오동도와 거문도는 마음을 글로 전한 남편의 사연, 비싼 등대를 찾은 방문객들이 '등대 느림보 우체통(사진)'에 남긴 감동 사연을 선별, 사연모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등대 느림보 우체통은 등대를 찾은 방문객이 작성한 엽서를 달팽이 우체통에 넣으면, 1년 후에 전달되는 해양 문화 프로그램으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 한 해 동안 등대 느림보 우체통에는 2천여점에 달한다. 우체통 안에는 30년을 함께 살아오며 사랑하는 마음을 글로 전한 남편의 사연, 비싼 등대를 찾은 방문객들이 '등대 느림보 우체통(사진)'에 남긴 감동 사연을 선별, 사연모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등대 느림보 우체통은 등대를 찾은 방문객이 작성한 엽서를 달팽이 우체통에 넣으면, 1년 후에 전달되는 해양 문화 프로그램으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연모음집은 청사, 등대(오동도·거문도), 여객선 터미널(여수·고흥) 등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책자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국정과

제, 사실항로표지 소유자의 영업부담 완화에 관한 규제개선 등 다양한 정보도 함께 수록돼 있다. 이호진 항행정보시설과장은 "등대를 찾아준 많은 이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등대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해양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발전시켜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23일 "지난 20일 2024년 한 해 동안 오동도와 거문도는 마음을 글로 전한 남편의 사연, 비싼 등대를 찾은 방문객들이 '등대 느림보 우체통(사진)'에 남긴 감동 사연을 선별, 사연모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등대 느림보 우체통은 등대를 찾은 방문객이 작성한 엽서를 달팽이 우체통에 넣으면, 1년 후에 전달되는 해양 문화 프로그램으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연모음집은 청사, 등대(오동도·거문도), 여객선 터미널(여수·고흥) 등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책자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국정과

고흥군, 노후 방조제 시설 개보수 추진

해장만 등 3곳 사업비 150억 확보...농경지·자연재해 예방

고흥군이 태풍·해일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노후 방조제 시설 개보수에 박차를 가하며 농경지 피해와 재해 안정 대책에 나선다. 23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로부터 방제시설 개보수 사업과 관련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는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 받았다. 이번 사업 대상은 포두면 해장만, 남양면 해내, 대서면 송림 방조제이며 축조된 지 4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안전 점검 결과 D등급을 받았다. 특히 시설물 노후화, 제방 여유고 부족, 사석 이탈 등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수 침투로 농경지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장만 방조제는 배수갑문을

작동하는 권양기의 내구연한이 지나 교체 시급한 상황이다. 고흥군은 이번 시행계획 최종 승인에 따라 사업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25년 상반기 중

작공할 예정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 농경지의 염해 피해와 풍수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태풍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노후 방조제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급한 지구부터 순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군민 재산 보호와 안전한 영농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최복환 기자



포두면 해장만 방조제. (고흥군 제공)